



남원 자봉센터, 취약계층에 추석 명절 밀반찬 전달

남원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6일 대한적십자사봉사자지원회 지원봉사자 30여명과 적십자봉사관에서 밀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재료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자지원회에서 추어탕 파우치 200개, 한국전기인전공사 남원순창지사에서 40만인 양의 김 세트를 후원했다.

곽주영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나눔을 위해 후원한 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밀반찬과 함께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며, 모두의 정성이 담긴 밀반찬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복한 추석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추석 이웃사랑 명절 선물 전달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은영)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난 2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25가구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동충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천수)에서 기탁한 남원사랑상품권과 김세트(55만원 상당), 임광산업(대표 고혜숙)에서 기탁한 백미 10kg 20포(46만원 상당)이다.

김은영 동충동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외되는 주민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흥부골 남원추어탕 이웃돕기 물품 전달

남원시 인월면은 관내 흥부골 남원추어탕 (대표 소재봉)에서 지난 5일 인월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기탁한 물품은 추어탕 2kg 31상자(한가액 100만원)로 "관내 거주하는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기탁했다.

소재봉 대표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명절과 행사 때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27년째 꾸준히 하고 있으며, 물품을 기탁해 "사랑 나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편 왕길성 인월면장은 이날 전달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의 힘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상전면 지사보험, 선물꾸러미 · 밀반찬 나눔

진안군 상전면지역사회협의회(민간위원장 박종석, 공공위원장 김요섭)이하 협의체는 6일 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가득 선물꾸러미·밀반찬사업」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담은 따뜻한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기 위해 상전면 기초생활취약사업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했다.

상전면 협의체 위원들은 선물꾸러미와 반찬 나눔을 위해 양질의 고기와 배추 등 재료를 준비해 직접 김치담고 밀반찬(4종)을 만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 40가구에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하고 대상자들의 인부를 살폈다.

박종석 민간위원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밀반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요섭 상전면장은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지역 장례복지문화 진흥 앞장

전주대-호정공원, 협약 체결... 발전기금 전달식도 가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호정공원(이사장 신영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 및 신영욱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특별하고 남다른 추모문화를 만들어 지역의 장례복지문화진흥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정공원은 전주대학교 교직원 가족들에게 품격있는 장례 서비스와 사용계약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는 장학금 지급을 위한 발전기금 등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을 위해 쌀달라며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2020년 5월 개장한 전북지역 최대규모의 공원묘원인 호정공원은 매장묘·봉안묘·수목장·화초장·잔디장·한옥봉안당 등 선택이 다양한 종합공원묘원으로,



로 학이 알을 품는 듯 따뜻한 땅이 묘역 전체를 감싸는 학포지단의 형세를 하고 있다.

신영욱 이사장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전주대학교와 상호협력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부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를 향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감사드리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의회,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 의원들이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최중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서동시장에서 지역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도 명절인사를 나눴다.

최중오 의장은 "오늘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무주군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물품 전달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무주군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격려 방문을 통하여 청취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양 의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 일수록 주변과 이웃에 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봉사하시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해양 의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 일수록 주변과 이웃에 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봉사하시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미경씨, 진안사랑장학재단에 1천만원 전달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6일 문미경씨가 군수실을 방문해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 문미경 씨는 "평소 학생들과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우리 진안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은행, 추석 명절 10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한빛은행인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주시시에 기부했다.

라면과 화장지, 사과 등 이날 전달된 물품은 전북은행 직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시는 이 물품을 전북은행의 뜻에 따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누는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한빛은행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나눔을 실천해준 은행 측에 감사드리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주시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외국인 근로자 추석음식 나눔

남원시가족센터는 추석을 맞아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음식체험 및 음식 나눔을 실시했다.

지난 3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10명(스리랑카, 필리핀, 미국, 아프리카)이 가족센터 조리실에 모여 전통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음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거리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요리 교실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빚어보는 송편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모양은 삐뚤뚤하지만 맛있다"며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니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6일 나눔 행사에서는 광치동 울치마을에 거주하는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50명에게 연잎밥, 송편, 식혜 등의 추석 음식과 전, 과일 10박스를 전달했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요즈음 고향이 그리우고 외로웠는데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과일을 받으니 고맙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차 방문교육 실시

진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5월~6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는 지킴이! 검정콩은 슈퍼푸드!」라는 주제로 진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유튜브 동영상 교육자료 상영과 1인 키트(검정콩, 콩불림통, 구입스티커, 나무인형, 클레이, 검정콩부각), 검정콩 머핀을 기관에 제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에 도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 4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유튜브 동영상에 따라 직접 검정콩을 관찰하고, 우리 콩 어디에 좋은지 알아본 후 나무인형을 꾸며 보고 검정콩으로 만든 머핀을 간식으로 먹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정에서도 검정콩을 먹을 수 있도록 콩부각과 콩불림통을 배부해 기관의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한 교사는 "검정콩이 몸에 좋은지 알고 있었지만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평가 했다.

/진안=유태만 기자